

※ 바로잡습니다 ※

- 한국광물학회지 제31권 1호 p.57~65 논문(제목 : 멕시코 이달고주의 지질 및 광화작용, 저자 : 오일환, 허철호)의 요약 및 주요어(한글, 영문)의 누락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바로잡습니다.

요약 : 멕시코 이달고주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변성암이 기저부를 이루며 상부에 고생대 퇴적암이 부정합으로 놓여있다. 트라이아스기-쥬라기 및 백악기 퇴적암은 상기 언급한 암석들위에 경사부정합적으로 놓여있다. 이들 중생대 암석들은 기저부가 해양성 기원인 신생대 암석들에 의해 덮혀있다. 신생대 암층의 정상부는 안산암질 및 현무암질 조성의 화산암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금속 및 비금속 광상들이 이달고주에 부존한다. 이들 광상을 배태하고 있는 암석들은 역시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중생대에서 제3기층에 해당한다. 그리고, 광화연령은 90%가 제3기에 해당된다. 이달고주는 멕시코에서 은과 망간의 주요 산지로 대부분의 주요 광상들은 퇴적암 배태 함은맥상 광상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연과 아연, 일부 소규모 철광상도 부존하고 있다. 주석과 몰리브데늄 광화작용의 증거가 있으나, 이들 광상들은 저품위고 매장량이 적어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그리고, 퇴적기원, 열수기원, 변성기원 및 화산기원의 다양한 비금속 광상들이 부존되어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주요어 : 멕시코, 이달고주, 지질, 광화작용

ABSTRACT : The geology of Hidalgo state in Mexico is formed by a Precambrian metamorphic rock base which discordantly supports a strong Paleozoic sedimentary rock sequence. Triassic-Jurassic and Cretaceous sedimentary rocks overlie the above-mentioned rocks at a discordant angle. These Mesozoic rocks are in turn covered by a Cenozoic structure which is marine at its base. At the top, the structure changes to andesitic and basaltic composition volcanic rocks. And, a great variety of mineral deposits, both metallic and nonmetallic, is present in Hidalgo state. The host rocks of these deposits are also very varied in age from Mesozoic to Tertiary. Mineralization age corresponds to Tertiary in 90% of the area. Hidalgo state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national silver and manganese production. Main mineral deposits correspond to argentiferous veins hosted in sedimentary rocks. Following in order of importance are lead and zinc, as well as some small iron deposits. There is evidence of tin and molybdenum mineralization, but these deposits have not been exploited because of their low grade and volume. And, Hidalgo state has different types of nonmetallic mineral deposits such as sedimentary, hydrothermal, metamorphic and volcanic origins.

Key words : Mexico, Hidalgo state, Geology, Mineralization

Accepted July 16 2018, Associate Editor : Dong Bok Shin

- 한국광물학회지 제31권 2호 p.113~121 논문(제목 : 전남 화순군 백아산 아천동굴(석회동굴) 동굴생성물을 이용한 생 광화작용 연구, 저자 : 김유미, 서현희, 조경남, 정다예, 신승원, 허민, 노열) 중 p.113 저자 정다예의 저자명과 저자 정다예, 조경남의 소속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조경남(Kyoung-nam Jo)² · 정다예(Da-yea Jung)²

²강원대학교 지질 · 지구물리학과

(Division of Geology and Geophys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si, Gangwon-do 24341, Republic of Korea)

- 한국광물학회지 제 31권 2호 p.123~135 논문(제목 : 전통 안료로 사용된 구리함유 녹색광물의 광물학적 특성과 산지 추정, 저자 : 도진영, 정종미) 중 p.132 Fig. 6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Fig. 6. Photo of the painting cultural properties and ore of Seokrok for analysis (Photo source of BP-1~BP-6: Homepage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O.K.).

- 한국광물학회지 제31권 2호 p.123~135 논문(제목 : 전통 안료로 사용된 구리함유 녹색광물의 광물학적 특성과 산지 추정, 저자 : 도진영, 정종미) 중 p.135 References에 다음 참고문헌을 추가하여 바로잡습니다.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eb-Homepage, Explore Heritage.